

##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상편 ◀

### 1. 문학의 기능과 원리

- (1) 배를 매며 (40문제)-----1쪽
- (2) 성난 풀잎 (31문제)-----19쪽
- (3) 어부사시사 (52문제)-----33쪽
- (4)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54문제)-----55쪽

###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이생규장전 (55문제)-----84쪽
- (2) 쉽게 씌어진 시 (40문제)-----117쪽
- (3) 스노우맨 (33문제)-----137쪽
- (4)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31문제)-----159쪽
- (5) 저녁에 (14문제)-----178쪽
- (6)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6문제) -----184쪽

###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 (1) 제가야산독서당 (35문제)-----210쪽
- (2) 황진이 (29문제)-----224쪽
- (3) 나도 그들처럼 (9문제)-----247쪽
- (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35문제)-----255쪽

◆빠른 전체 정답-----276쪽

◆해설-----28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배를 매며” 분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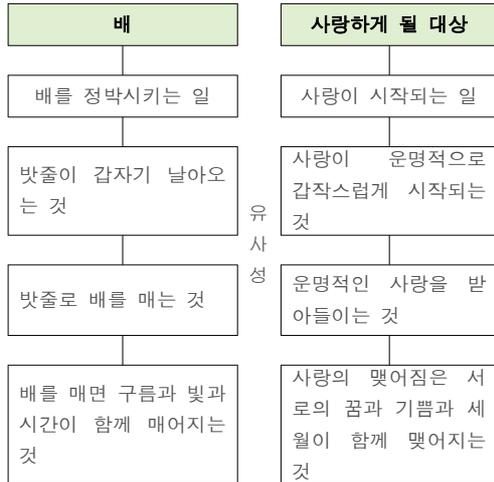
## 작품 개관

<b>갈래</b>	자유시, 서정시
<b>성격</b>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
<b>제재</b>	배를 매는 일
<b>주제</b>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b>특징</b>	① 유추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함. ②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부각함. ③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함.

## 작품의 구성

<b>1연</b>	우연히 배를 매어 본 경험
<b>2연</b>	갑자기 배를 매듯이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b>3연</b>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b>4연</b>	사랑에 대한 깨달음
<b>5연</b>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배

## 핵심 1 유추의 전개 방식



## 핵심 2 시어의 의미

<b>배</b>	사랑하게 될 대상
<b>밧줄</b>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b>부둣가</b>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올 공간
<b>구름, 빛, 시간</b>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세계(주변 환경)

## 핵심 3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사랑은-배를 매게 되는 것’  
 •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

**사색적인 어조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표현함.**

## 핵심 4 운율 형성 요소

•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맨다’, ‘닿는다’  
 • ‘받는 것’, ‘되는 것’, ‘매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  
 •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사랑은(이란)~~(는) 것’

↓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배를 매며” 몸은 포인트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사랑하게 될 대상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일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올 공간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속성을 지닌 사랑

배를 매게 되는 것

▶ 갑자기 배

잔잔한 바닷물 위에

○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주변 환경)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 t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사랑의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라는 의미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설렘, 기쁨, 경이로움

온종일을 떠 있다

## “배를 매며” 교과서 문제 모음

1.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화자가 있는 장소	시적 화자가 하는 행동
부둣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에서 던져진 밧줄을 영겁결에 받아 맬.</li> <li>• 구름과 빛, 시간이 함께 있는 배를 바라보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됨.</li> </ul>

2. 다음 시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배	<b>답</b> 사랑하게 될 대상
밧줄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부둣가	<b> 예시 답</b> •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 • 사랑이 찾아올 공간

3. 마지막 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자.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운종일을 떠 있다

-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설렘.
- 운명적 사랑의 환희와 경이로움을 느낌.

4. 이 작품에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보자.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	그렇게 생각한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li> <li>• ‘맨다’, ‘닿는다’</li> <li>• ‘받는 것’, ‘되는 것’, ‘매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li> <li>•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3연),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4연)</li> </ul>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이 느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은(이란) ~ -L(는) 것’</li> </ul>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이 느껴짐.

5. 작품에 나타나는 비유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갑자기 날아오는 것	운명적으로 사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밧줄로 배를 매는 것	<b>답</b>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는 것	<b>예시 답</b> 사랑의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

6. 이 작품이 정서적·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갑자기 찾아온 사랑과 그 심정을 적절한 비유와 리듬을 통해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7. 다음 작품이 정서적·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甘露)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山) 너머는 평안도(平安道) 땅도 보인다는 이 산(山)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 <백화(白樺)>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자연 친화적
제재	자작나무
주제	순수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특징	①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남. ② '자작나무다'라는 시구를 각 행의 끝에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이 작품은 시행 끝에 특정 시구('자작나무다')를 반복 배열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심상(시각, 청각, 미각)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 교과서 문제는 시험에 그대로 출제될 수 있으니 필히 암기할 것!
- ★ 답이 제거된 버전은 총만국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배를 매며” 모충 자료

시에서 배의 의미- 시인, 그리고 푸른 눈

마당에 / 녹음 가득한  
 배를 매다 //  
 마당 밖으로 나가는 징검다리  
 끝에 / 몇 포기 저녁 별  
 연필 깎는 소리처럼 / 떠서 //  
 이 세상에 온 모든 생들  
 측은히 내려 보는 그 노래를  
 마당가의 풀들과 나와는 지금  
 가슴 속에 쌓고 있는가 //뺏길 당겼다 놓았다 하는  
 영혼 / 혹은. / 갈증 //  
 배를 풀어  
 쏟아지는 푸른 눈발 속을 떠갈 날이 / 곧 오리라//  
 오, 사랑해야 하리 / 이 세상의 모든 뒷모습들  
 뒷모습들

- , <마당에 배를 매다>

외판집에 내리던 ‘사락눈’이 ‘살구나무의 뿌리’를 깨우면서, ‘살구꽃’을 허공에 띄워 내더니만, 이젠 그 나무가 매여 있는 ‘배’로 미끄러진다. 봄의 살구꽃이 마치 ‘흰 돛배’처럼 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면, 여름의 살구나무는 ‘녹음 가득한 배’인 것이다. 어느 해 저물녘 마당에 앉아 초월의 삶을 꿈꾸던 시인은 그 숲에 어둠이 깃들이기 시작하자 연상 작용을 통해 조용한 밀물처럼, 그 밀물을 타고 들어오는 ‘배’를 발견하게 된다. 대개 인간의 인생을 사계절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시 ‘마당에 배를 매다’는 한창 청춘이 무르익고 젊음이 깊어가는 시점에서, 녹음을 가득 싣고 온 ‘시간’이라는 심연의 배를 타고 진지한 생의 고찰에 다다르기 위해 또 하나의 비유적 사건을 형성해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여름 마당에서 시인은 스스로 삶을 수용하는 방식과 그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는 시집 《왼쪽 가슴 아래쪽에 온 통증》에 <배를 밀며>와 <배를 매며>라는 시와 나란히 실려 있어서, 배에 관한 3부작으로 묶어서 읽어 본다면 <마당에 배를 매다>의 해석의 틈을 채워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배를 민다

배를 밀어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운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 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중략)

시인은 이 <배를 밀며>와 <배를 매며> 두 편의 시에서 배를 밀고 매는 행위를 ‘사랑과 슬픔의 경험’과 밀착하여 풀어쓰고 있다. 첫 번째 시 <배를 밀며>에서 바다로 배를 민다는 것은 단순히 부두를 떠나는 출항이 아니라, 순간의 허공 속으로 ‘운몸이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힘껏 배를 밀고 열린 배로부터 손을 거두는 ‘아주 드문 경험’이다. 여기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스며 있는데, 이렇게 운몸으로 배를 밀고 순간 환해진 손을 거두는 행위는 ‘사랑’의 경험과 직결되면서, 헤어지면 슬픔과 흉터를 남기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1-(1) 배를 매며 [이론편]

불구하고 다시 배가 밀려 들어오기를, 즉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일러 주고 있다.

두 번째 시 〈배를 매며〉는 〈배를 밀며〉의 마지막 행을 첫 행에 반복하면서 바로 연결되고 있는 시임을 보여 준다. 떠났던 배가 조용히 돌아오는 것, 돌아온 배의 밧줄을 얼떨결에 매는 것, 거기에 구름과 빛과 시간도 함께 매임을 처음 아는 것 등이 바로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사랑은 끊임없이 배를 밀고 매고 풀면서, 내면의 고향과 같은 겹겹의 추억을 만들어 가며 진행되는 것이다.

이제, 이 두 편의 시가 가지는 해석적 의미를 바탕으로, 시 〈마당에 배를 매다〉를 다시 보자. 마당은 시적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 공간이자 그의 내면세계이기도 한데, 이 시에서는 푸른 마당이 푸른 바다로 전이되어 읽히기도 한다.

한 편의 시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변주되는 ‘배’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주는데, 마당에 서 있는 나무 자체이면서, 여름 숲의 해질녘에 밀려 들어오는 어둠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한 줌의 시간을 싣고 다니는 생의 한 단면이자, 사랑의 대상이며, 또한 시 작품 자체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당에 배를 매는 행위는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 지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시적 화자가 배를 매면서 환했던 추억, 혹은 내면의 고향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의 머리 위에는 별이 뜨고, 제한된 세계를 초월해 보고자 하는 그의 충만한 의지는 시인의 별에 다다르기도 한다. 이때 징검다리인 마당 안과 마당 밖을 연결시키는 수평적 이동 통로이자, 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수직적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이다. 별이 ‘연필 깎는 소리처럼 떠서’라고 표현된 것은, 배를 매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이자, 또 시인에게는 바로 ‘시 쓰기’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상이 되어 줄 자연과 사물을 관찰하고 시인이 거기에 동화됨은, 시를 쓰기 위한 도구를 다듬는 일·연필을 깎는 행위와 동일할지 모른다.

**다른 작품: 장석남의 〈배를 밀며〉**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내용상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배를 미는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로 유추하여 나타내고 있다. 〈배를 매며〉의 시적 상황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시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
제재	배를 미는 일		
주제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특징	① 배를 미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유추함.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주제가 유사한 작품: 유치환의 〈행복〉**

‘편지’를 소재로 하여 사랑을 하는 일의 설렘과 소중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배를 매며〉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면서 사랑의 어떤 측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지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낭만적
제재	사랑의 행복		
주제	사랑의 소중함과 이를 통해 깨달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		
특징	①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시상의 안정감을 획득함. ② 일상적이고 평이한 시어를 통해 부드러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낮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떠 있는 배

①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소담고등학교 (세종)**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랑에 빠진 설렘과 행복감이 드러나 있다.
- ②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는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
- ④ 바다 위에 조용히 떠 있는 배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 ⑤ 어구의 반복과 소재에 상징적 의미 부여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인제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의 화자가 했음직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은 배를 매듯 주체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야.
- ② 온종일 사랑에 빠진 설렘과 기쁨을 걱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어.
- ③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의 주변 환경까지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야.

- ④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지만 언젠가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
- ⑤ 부둣가에서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지켜낼 거야.

**인제고등학교 (인천)**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서 사랑을 형상화한 방식과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보기>

윗글은 직접 지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행위인 '배를 매는 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무음아 너는 어이 미양에 저뻐한다.  
 내 늘글 적이면 넌들 아니 늘글소나  
 아마도 너 좇녀 돈니다가 늬 우일가 흐노라.
- ② 꿈에나 님을 불러 잠 일울가 누엇드니  
 새벽 달 지새도록 자규성(子規聲) 어이허리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너나 내나 달오리.
- ③ 이련들 엇더하며 더련들 엇더호료..  
 草野愚生(초야우생)이 이려타 엇더호료.  
 흐몰며 泉石膏肓(천석고황)을 고타 므슴호료.
- ④ 집 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인들 못 안즈라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도다 온다.  
 아희야 박주산채(薄酒山菜)르만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⑤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샤.  
 날러 다 못 날러 불러나 푸뫼든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 나도 불러 보리라.

**동탄고등학교 (경기)**

4. 윗글과 <보기>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

- ①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의지적인 존재로 형상화하여 현실 극복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뱃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② '천천히', '조용히'는 차분한 화자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③ '부딪기'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설정한 배경이다.
- ④ '잔잔한 바닷물'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⑤ '울렁이며'는 사랑에 빠진 화자의 경이로움을 보여 준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공감하는지 <조건>에 맞추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조건>

- ㉠, ㉡ 중 하나를 골라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반드시 언급할 것.
- 화자의 깨달음에 대한 공감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것.
- 공감 여부에 대한 근거(자신의 경험 또는 유사한 사례)를 들어 서술할 것.

**화흥고등학교 (경기)**

7. 윗글에 쓰인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는 사랑의 대상을 의미한다.
- ② '뱃줄'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의미한다.
- ③ '부딪기'는 사랑이 찾아올 공간을 의미한다.
- ④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를 의미한다.
- ⑤ '울렁이며'는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을 의미한다.

**광주고등학교 (광주)**

8. 윗글에 사용된 시상 전개 방식을 쓰고, 그에 따라 <보기>의 ㉠ ~ ㉣의 함축적 의미를 각각 서술한 후, 이를 근거로 작품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보기>

- ㉠ 뱃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
- ㉡ 뱃줄로 배를 매는 것.
- ㉢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는 것.

<조건>

- 1. 완결된 문장을 갖추어 서술하시오.
- 2. 글(가)에 나타난 시상 전개 방식을 제시하시오.
- 3. 2번 조건을 참고하여 ㉠ ~ ㉣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시오.
- 4. 작품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닢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나)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甘露)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山) 너머는 평안도(平安道) 땅도 보인다는 이 ㉠산(山)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백석, '백화(白樺)'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9.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다냐.  
 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난 제 구태야  
 보내고 그리난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 ① (가)와 <보기>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보기>와 달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보기>와 달리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보기>는 (가)와 달리 이별이 시적 화자가 놓인 상황이다.
- ⑤ (가)는 사색적 어조인데 반해, <보기>는 회한적 어조이다.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1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사랑하는 이와 인연이 시작되는 반가움을 그리고 있다.
- ③ ㉢ : 사랑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정성을 쏟게 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 사랑으로 인해 온종일 설레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계산여자고등학교 (인천)**

11. (가)의 시구에 담긴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에서 멀어지는 인연을 지속하고 싶은 화자의 적극적인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에서 화자가 혼자서 오랫동안 상대방을 사랑해 왔으나, 신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뉘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에서 상대방과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랑에 회의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화자가 상대방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1-(1) 배를 매며

1.⑤

▶현실 극복 의지가 아닌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냄.

2.③

▶3연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음.

① 주체의 의지가 아닌, 운명적으로 찾아옴. ② 격정적이 아닌, 설렘과 기쁨을 깨달음과 함께 담담하게 노래함. ④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는지는 알 수 없음. 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지켜낼 거라는 의지적 태도는 없음.

3.①

▶'마음(마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인 '너'로 형상화함.

**◆주제 저장소◆**

① <마음아 너는~>: 늙음을 한탄함  
 마음아, 너는 어찌 늙어 있느냐.  
 내가 늙을 때면 너인들 늙지 않겠는가.  
 아마도 너(마음)를 좇아 다니다가 남을 웃길까 두렵구나.

② <꿈에나 님을 불러~>: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  
 꿈에서나마 님을 보려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새벽달이 지새도록 우는 두견새 소리를 어이 하리?  
 두어라, 애끓는 춘심이야 너나 나나 다르겠느냐.

③ <이런들 엇더하며~>: 자연에 동화된 생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공명이나 시비를 떠나 살아가는 생활)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병처럼 된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랴?

④ <집 방석(方席) 내지 마라~>: 자연 속의 소박한 풍류  
 짚으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말아라. 떨어진 나뭇잎엔들 알지 못하겠느냐.  
 관솔불을 켜지 말아라. 어제 췌던 밝은 달이 돌아온다  
 애야!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진수 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변변치 않은 술과 나물일지라도 좋으니 없다 말고 내오너라.

⑤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통해 시름을 풀어보고자 함  
 노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근심과 적정이 많기도 많았구나.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노래로) 풀었던 말인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4.⑤

▶윗글에서 자연을 의지적인 존재로 형상화한 것은 없음.

① 윗글에선 '털썩', <보기>에선 '짜그락', '난분분' 등의 음성 상

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③ 윗글에선 '사랑은~배를 매게 되는 것'이 은유법이며, '햇솥 같은 마음'이 직유법이다.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첫사랑>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  
 \*해제: 이 시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그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 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는 한 대상에 대한 오롯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을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명명, 졸졸졸)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3. 열거 vs 반복 vs 대구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5.⑤

① '밭줄'은 화자에게 날아온 것이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② '천천히', '조용히'는 배의 움직임과 관련됨. ③ '부딪기'는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임. ④ '잔잔한 바닷물'은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일 뿐임.

7.②

▶'밭줄'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임.

9.①

▶둘 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없음.

<어저 내 일이야~>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해제: 작품은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悔恨)을 진솔하게 나타낸 작품이다. 애절한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우리말의 절묘한 구사를 통해 표현하였다.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겪는 오묘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며,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약한 화자의 마음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초장에서 '어저'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며 그리움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했고, 중장과 종장의 행간에 걸쳐진 '제 구태여'라는 도치법(또는 행간 걸침)의 표현이 돋보인다. 고려 가요 '가시리', '서경별곡'과 함께 현대 시 '진달래꽃'을 매개하는 이별가의 절창으로 평가받는다.

\*현대어 풀이: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이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울 줄을 미처 몰랐더냐?  
있으라 했더라면 임이 굳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 줄고는  
이에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 자신도 모르겠구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시적 어조의 종류 (★)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 2.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10.④

▶㉔: 사랑의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임.

11.⑤

- ①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에서 우연히 사랑이 시작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강조하는 건 아님.
- ②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맞이하는 것이지 멀어지는 인연을 지속하고 싶은 것은 아님.
- ③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는 배의 움직임과 관련됨.
- ④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은 갑자기 배를 매듯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을 말함.

12.③

ㄷ: 의인법은 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내적 ↔ 외적  
본질적 ↔ 현상(현실)적 / 자연적 ↔ 속세 / 물질적 ↔ 전통적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의인법 vs 활유법 (★★★)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 2.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나면 대구법이 됨.

13.①

▶동일한 종결어미인 '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울타리 밖>

\*주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망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반어 vs 역설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